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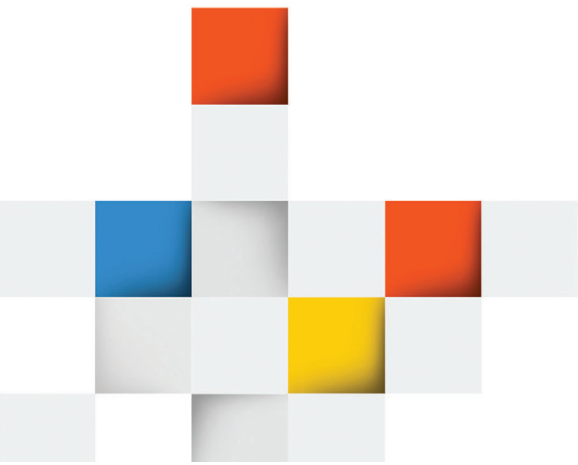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14

<http://sri.kostat.go.kr>

2014



통계청

통계개발원

04

남한과 북한의 인구성장
및 인구구조의 비교

전광희 (충남대학교)

- 북한의 인구는 남한의 절반 정도이지만 상대적 크기는 1960년대 중반 이후 서서히 증가해 왔고, 인구증가율은 자연 증가율의 차이 때문에 1960년대에는 남한이 북한보다 높았으나 1970년 이후 역전되기 시작했다.
- 남한의 성비는 1950년대부터 100명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북한은 1950년대에는 85 수준이었고 2000년대 이후는 95 수준으로 점점 개선되어 왔다.
- 생산가능인구의 구성비는 남한이 북한보다 약간 크지만, 남북한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저출산으로 0-14세 인구 구성비의 감소 속도는 남한이 북한보다 빨라서 65세 이상 고령자 인수도 남한이 북한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현재 남한이 북한보다 유소년부양비는 작고, 노년부양비는 크지만, 전반적으로 남북한 모두 총부양비가 낮기 때문에 경제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총부양비는 남한이 북한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45년 남한과 북한에 별도의 정치체제가 수립되면서 두 지역의 인구통계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성되어 왔다. 북한은 해방 이후 인구통계는 대부분 행정자료에 의존하고 센서스는 1993년과 2008년에 2번 실시하였을 뿐이며, 인구동태 특히 출생통계와 사망통계도 정해진 일정에 따라 공표한 적이 없다. 한편, 남한은 해방 후 5년마다 규칙적으로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여 왔고, 「인구동태통계」도 신고의 누락이나 지연을 개선해 왔다.

남한은 2000년대부터 시작된 출산을 하락으로 인하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남북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출산율이 과거는 물론 현재에도 남한보다는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남한의 노동력 부족 사태를 타개하고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도 1990년대에는 ‘고난의 행군’으로 상징되는 인재(人災)의 성격이 강했던 자연재난을 경험했고, 이 재난이 인구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홍민, 2013). 이 때문에 우리는 남한과 북한의 인구변동을 비교하고, 특히 근년의 동향을 중심으로 과거와 미래를 조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인구성장과 인구구조의 특성을 비교한다. 주요 관심은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최근 동향이나 한국전쟁 이후부터 21세기 중반까지의 중장기적 인구추이도 비교 검토하도록 한다. 이 글에서 남한과 북한의 비교 검토에 사용되는 자료는 일차적으로 통계청과 UN의 추계인구이며, 이를 작성하는 데 사용된 자료는 남한의 경우



「인구주택총조사」와 「인구동태통계」이고, 북한의 경우는 1993년과 2008년의 센서스, 곧 「일제 인구조사」와 표본조사에서 추정된 「인구동태 통계」이다.

인구규모와 인구성장의 비교

남북한 총인구를 보면, 2013년 남한은 5,022만 명이고, 북한은 2,454만 명으로 북한의 인구는 남한의 절반 수준이다(표 I-10). 남한인구 대비 북한인구의 비중이 최저점에 이르렀던 시기는 1960년대 중반으로 한국전쟁 당시 북한 인구는 남한인구의 55%였다가 점점 감소하여 1960년대에 최저점인 44% 수준에 이르렀다가 그 이후에 점점 상승하여 2010년대에는 50% 수준에 근접하게 되었다.

표 I-10 남한과 북한의 추계인구, 195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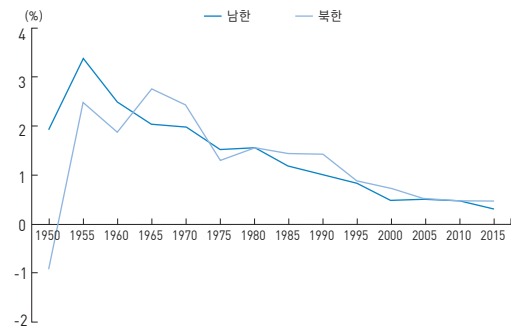
연도	남한인구 (만 명)	북한인구 (만 명)	남한 대비 북한인구 비(%)
1950	1,921	1,055	54.9
1955	2,117	1,009	47.7
1960	2,507	1,142	45.6
1965	2,839	1,255	44.2
1970	3,144	1,441	45.8
1975	3,471	1,628	46.9
1980	3,745	1,737	46.4
1985	4,050	1,878	46.4
1990	4,287	2,022	47.2
1995	4,509	2,172	48.2
2000	4,701	2,270	48.3
2005	4,814	2,356	48.9
2010	4,941	2,419	49.0
2013	5,022	2,454	48.9
2015	5,062	2,478	49.0

주: 1) 남북한 인구 비교의 시계열 정합성을 고려하여, 1950-1985년은 유엔 UN 추계인구, 1990년부터는 통계청 추계인구를 이용함.
출처: 통계청, 「1993-2055 북한 인구추계」, 2010; 「장래인구추계」, 2011.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2 Revision*, 2013.

[그림 I-21]에서 남북한의 연평균 인구성장률은 한국전쟁 이후 20여 년간에는 차이가 컸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모두 1% 미만, 특히 최근에는 0.5% 수준으로 떨어져 남북한 간의 차이가 거의 없어졌다.

남북한의 연평균 인구성장률을 시기별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국전쟁을 거쳐 1960년대까지는 남북한 모두 해외동포의 귀환과 북한 주민의 월남 등으로 남한의 인구성장률이 북한보다 높다. 남한은 1955년에 정점에 이르고 북한은 남한보다 베이비붐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장기화되면서 2% 근방의 높은 인구성장률이 1970년대 초반까지 계속되었다.

그림 I-21 남북한의 연평균 인구성장률, 1950-2015



주: 1) 남북한 인구 비교의 시계열 정합성을 고려하여, 1950-1985년은 유엔 추계인구, 1990년 이후는 통계청 추계인구를 이용하여 산출함.
출처: 통계청, 「1993-2055 북한 인구추계」, 2010; 「장래인구추계」, 2011.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2 Revision*, 2013.

1980년대 이후에는 남북한의 인구성장률이 1.5%대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남한에서는 계속 낮아져 1990년대 이후에는 1% 이하로 떨어져 2000년대 이후는 0.5%대 근방에 머무르

고 있다. 북한의 인구성장률은 1990년대까지는 남한보다 약간 높았지만 1995년 이후에는 1% 이하로 떨어지고 2010년대에는 0.5%대에 이르면서 남한 수준에 근접하게 되었다.

인구변동요인의 비교

남한과 북한의 인구성장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표 I-11>에 인구변동요인을 출생률, 사망률, 국제인구이동률로 구분하였고, 남한과 북한의 인구변동요인 차이를 도표화한 것이 [그림 I-22]이다.

출생률은 1960년대 중반까지는 남한이 북한보다 높다가 1960년대 후반부터 북한이 남한보

다 높게 나타난다. 1960년대부터 남한에서는 범정부적 가족계획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북한보다 출생률이 낮아지나 북한도 한국전쟁 후에 생겨난 베이비붐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성장이 사회주의 국가건설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출산억제정책을 실시하면서 1970년대 후반부터는 출산율이 낮아지기 시작했다(김두섭 외, 2011; 문호일, 2011; 박경숙, 2013; 이석, 2011).

전체적으로 남한은 1980년대 전반에 출생률은 인구 1,000명당 20명 수준에 이르고, 합계출산율은 대체수준 2.1을 밑돌았다. 1990년대 전반에 출생률이 약간 상승하기는 했지만 IMF 금융위기로 사회 전반이 위기에 빠지면서 2000년대 전반부터 출생률이 10명 이하로 떨어지고, 합계출산율은 1.3명 수준을 넘지 못하면서 동태통계 작성 이후 최악의 초저출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사실 2000년대 이후 남한의 초저출산율 체제는 경제위기와 혼인연령 상승, 양육환경 악화, 청년실업 증대 등으로 생겨난 시대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북한의 출생률은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남한보다 높았지만 1990년대 전반부터 천천히 저하하고 있는데, 이것은 1990년대 전반 북한의 식량배급체제가 붕괴할 정도의 큰 자연재난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홍민, 2013). 한국의 통계청과 UN이 2000년대 이후에 추계한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당 2.0명 수준인데, 북한의 출생률이 빠르게 감소하는 것은 합계출산율 자체의 감소보다는 15-49

표 I-11 남한과 북한의 인구변동요인, 1950-2010

연도	출생률		사망률		순이동률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1950	35.8	25.3	16.4	23.2	0.0	-11.0
1955	45.4	40.2	15.4	15.3	3.8	0.0
1960	39.9	32.5	13.0	13.8	-2.1	0.0
1965	32.9	38.6	9.9	10.9	-2.6	0.0
1970	30.3	32.6	7.8	8.3	-2.7	0.0
1975	23.1	19.7	7.0	6.6	-0.9	0.0
1980	20.4	21.8	6.4	6.3	1.6	0.0
1985	15.5	20.6	5.7	6.1	2.1	0.0
1990	16.0	20.8	5.5	5.8	-2.9	0.0
1995	13.6	19.1	5.5	9.4	-2.3	0.0
2000	10.2	16.7	5.3	8.4	-0.4	0.0
2005	9.6	14.7	5.1	9.0	1.4	0.0
2010	9.6	14.4	5.6	9.2	1.2	0.0

출처: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2 Revision*, 2013.



세 가임여성의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망률은 1950년대 전반에 북한이 남한보다 높은 수준이었는데, 이것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북한에서 더 컸음을 의미한다. 195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전반까지도 북한과 남한의 사망률이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다가 1990년대 후반 북한의 사망률이 상승하면서 남한과 북한의 사망률 차이는 더 커지기 시작한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1990년대에 시작된 ‘고난의 행군’으로 상징되는 재난으로 말미암아 북한의 남녀 평균 기대수명은 1990년대 전반 70.0세에서 1990년 후반에는 63.5세로 급감하였으나, 2000년대 전반에 68.1세로 약간 반등하여 재난 발생 이전 수준에 근접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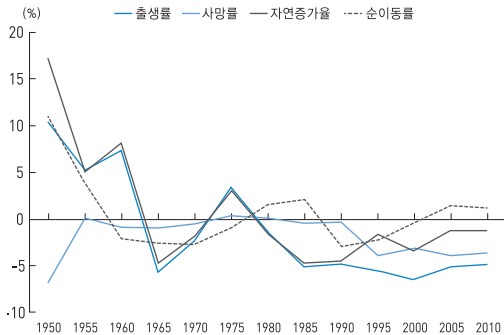
다음은 자연증가율, 곧 출생률과 사망률의 차이를 살펴보자. 1950년대 전반에는 북한이 남한보다 자연증가율이 크게 낮았지만 그 차이가 점점 줄어들어 1970년대 전반에는 역전되어 북한의 자연증가율이 남한을 능가하다가 1970년대 후반에 다시 남한보다 일시적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남한의 출산율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면서 북한의 자연증가율이 남한을 크게 앞지르다가 1990년 후반에는 다시 거의 비슷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2000년 초반에는 남한의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수준에 이르면서 일시적이거나 남북한의 자연증가율 차이가 커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국제인구이동이 남북한의 인구

성장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겠다. 북한은 한국전쟁이 진행되던 1950년 전반을 제외하고는 폐쇄인구, 곧 순이동률이 제로로 가정되고 있다. 탈북자가 적지는 않으나 북한의 인구변동에 영향을 줄 정도로 큰 것은 아니다(문호일, 2011; 이석, 2011). 반면에 남한은 1960년대 전반부터 1980년 이전까지 인구의 해외유출로 남북한 인구성장률의 차이를 줄이는 데 기여하였다. 1980년대에는 순유입이 진행되어 남북한 간 차이를 늘리다가 1990년대와 2000년대 전반까지는 다시 해외유출이 진행되었으나 2000년대 후반에는 순유입이 많아지면서 북한과의 인구성장률 차이를 줄이게 되었다.

최근 남한과 북한의 인구성장률 차이는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인구변동요인을 보면, 출생률은 북한이 남한보다 높지만 사망률은 남한이 북한보다 낮아서 자연증가율이 비슷한 수준에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기할 만한 것은 한국전쟁이 남한과 북한의 인구성장에 큰 영향을 주었지만, 전쟁 이후 베이비붐으로 인한 급격한 성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점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남북한 모두 국가주도의 출산억제정책을 실시하였다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에도 남한은 경제발전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출생률이 감소하면서 북한의 자연증가가 남한보다 빨라지게 되었지만,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경험하고 남한은 IMF 경제위기를 경험하게 되면서 남북한의 인구성장률은 그 차이가 점점 줄어드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림 I-22 남한과 북한의 인구변동요인 차이(남한-북한), 195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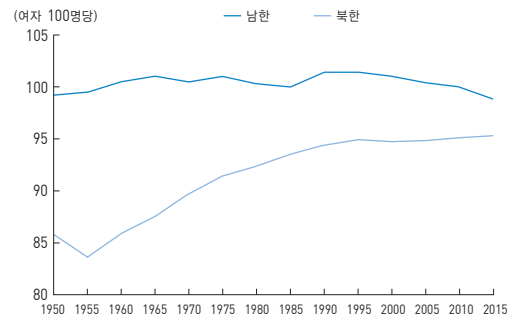
주: 1) 남북한 인구 비교의 시계열 정확성을 고려하여, 1950-1980년은 UN 추계인구, 1990년 이후는 통계청 추계인구를 이용하여 산출함.
출처: 통계청, 「1993-2055 북한 인구추계」, 2010; 「장래인구추계」, 2011.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2 Revision*, 2013.

인구 성비구조의 비교

여자인구 100명당 남자인구가 얼마인지를 말해주는 성비를 살펴보면, 북한의 성비는 꾸준히 개선되어 최근에는 95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비구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는 경제발전, 남성 중심적 규범에 따른 남아선호사상, 남녀 간 차별사망력 등이 있다. 그러나 남북한 성비에 영향을 준 가장 큰 요인은 한국전쟁이다. 북한에서는 이른바 ‘민족해방전쟁’에 종군한 10대 후반에서 20대, 30대의 남자들이 전쟁 중 상당수 사망함으로써 대규모 인력난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성별 인구구조를 심하게 왜곡시켰다. 1950년대에 전체인구의 성비는 정상성비 100보다 낮은 훨씬 낮은 85 수준에 머물렀으나 꾸준히 개선되어 1995년에는 95에 이르러 최근까지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I-23).

반면에, 남한인구의 성비는 거의 60년(1960-2010년) 동안 100에 근접하고 있으며, 1950년대에 100에 약간 못 미친 것은 한국전쟁 기간 중에 여성 대비 남성의 초과사망에 기인한다. 2010년대에 성비가 다시 100을 약간 밑돌기 시작하는데 이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고령층에서 생존율이 높기 때문이다.

그림 I-23 남북한 인구의 성비, 1950-2015



주: 1) 남북한 인구 비교의 시계열 정확성을 고려하여, 1950-1980년은 UN 추계인구, 1990년 이후는 통계청 추계인구를 이용하여 산출함.
출처: 통계청, 「1993-2055 북한 인구추계」, 2010; 「장래인구추계」, 2011.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2 Revision*, 2013.

인구 연령구조의 비교

남북한 인구의 연령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표 I-12>에는 0-14세(유소년인구), 15-64세(생산가능인구), 65세 이상(고령자인구)의 연령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제시하였다.

유소년인구의 비율은 1950-2015년의 65년간에 북한은 43.4%에서 20.5%로 감소하고 남한은 42.5%에서 13.9%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북한이나 남한 모두 감소의 속도가 대단히 빠른 편인데, 1955-1970년까지는 북한이 남한보다 유소년인구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1975년 이후에는 북한이 남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남한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범국가적 가족계획사업으로 유소년인구의 구성비가 급감하였다. 그 이후에도 유소년인구의 구성비가 계속 감소하였는데 이는 1980년대 중반 이후에 합계출산율이 대체수준 2.0명을 밑돌다가 2000년 중반에는 1.3명을 밑도는 초저출산의 인구체제가 출현하였기 때문이다.

생산가능연령대(15-64세)의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50-2015년의 65년 동안에 북한은 53.5%에서 70%에 근접하게 되

고, 남한은 54.6%에서 7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남한은 노동력 공급 측면에서 여전히 성장잠재력이 있는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응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북한의 경우도 남한과 마찬가지로 최근 20여 년간 노동력 공급이 사실상 최고에 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형식적으로 고용이 있기는 하지만 기근피해나 사회주의 경제의 비효율성 때문에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경제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사회의 개혁 및 개방에 대한 다양한 구상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 곧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50-2015년의 기간에 북한은 1950년 3.1%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0년에는 9.0%로 고령화사회의 문턱을 넘어섰고 2015년에는 1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남한은 고령자인구의 비율이 1950년의 2.9%에서 1980년까지는 4%를 밑돌다가 1990년 이후에 급속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0년에는 북한보다 일찍이 7%를 넘어섰으며, 2015년에는 13.1%로 고령사회에 접어들어 사회정책의 대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표 1-12 0-14세, 15-64세, 65세 이상 남북한 인구의 구성비, 1950-2015

연도	0-14세		15-64세		65세 이상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1950	42.5	43.4	54.6	53.5	2.9	3.1
1955	40.3	38.8	56.3	57.9	3.4	3.3
1960	40.9	37.7	55.4	59.1	3.7	3.2
1965	43.0	36.7	53.6	60.1	3.4	3.2
1970	42.1	41.6	54.6	55.2	3.3	3.2
1975	38.2	39.7	58.4	57.0	3.5	3.2
1980	33.9	36.3	62.2	60.1	3.9	3.6
1985	30.1	31.0	65.6	65.1	4.3	3.9
1990	25.6	26.8	69.4	68.9	5.0	4.4
1995	23.4	27.0	70.7	67.4	5.9	5.7
2000	21.1	26.5	71.7	67.2	7.2	6.3
2005	19.2	24.9	71.7	67.4	9.1	7.7
2010	16.1	22.4	72.8	68.6	11.0	9.0
2015	13.9	20.5	73.0	69.3	13.1	10.2

주: 1) 남북한 인구 비교의 시계열 정합성을 고려하여, 1950-1990년은 UN 추계인구, 1990년부터는 통계청 추계인구를 이용하여 산출함.
출처: 통계청, 「1993-2055 북한 인구추계」, 2010; 「장래인구추계」, 2011.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2 Revision*, 2013.

부양인구의 비교

이제 남북한의 총부양인구 구조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총부양인구

비의 분모인구는 생산활동 또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15-64세 연령대의 인구이다. 북한의 경우 의무교육이 끝나고 16세부터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남북한 비교가 가능하도록 15-64세 인구를 분모인구로 설정하였다. 총부양인구비의 분자인구인 피부양인구는 0-14세의 유소년과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합한 인구이다.

남한의 총부양비는 1950년의 83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1965년에 87로 높아졌다가 이후 본격적으로 저하하여 2010년에는 38에 이른다. 1960년대 후반 이후 남한의 총부양비 변화는 사실상 합계출산율 저하에 따른 유소년 인구의 감소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북한의 총부양비는 1950년의 87에서 1965년에는 67로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하여 1970년

에 81에 이른 후 계속 하락하여 1990년에 45로 최저점에 이르렀다가 약간씩 상승한다. 이러한 변화는 앞에서 보았듯이, 1990년대 이전에는 주로 유소년인구의 변화 때문에 발생하고 1990년대 이후에는 주로 65세 이상의 고령자인구의 변화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종합과 전망

2013년 현재 남한의 인구는 5,022만 명이고, 북한의 인구는 2,454만 명으로 북한인구는 남한 인구의 절반 정도이다. 북한인구의 상대적 크기는 해방 이후 감소하다가 1970년대 이후 천천히 증가하고 있다.

연평균 인구성장률은 1960년대에는 남한이 북한보다 높았으나 1970년 이후 역전되기 시작한다. 남북한 인구성장률 차이에는 출생률이나 사망률과 같은 자연증가율의 차이가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국제이주이동은 북한은 사실상 제로이기 때문에 거의 영향이 없고 남한의 인구성장률 변화에는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주었다.

북한인구의 성비는 1950년대에는 100에 훨씬 미달하였지만, 최근에 이르러 100에 근접하게 되었다. 남한은 1950년대부터 성비가 100 수준을 유지하였지만 최근에 이르러 100 이하로 떨어진다.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은 남한이 북한보다 약간 많지만, 저출산의 영향으로 0-14세의 유소년인구의 비율은 남한이 북한보다 빠르게 감소

표 1-13 남북한 인구의 부양비 구조, 1950-2015

연도	총부양비		유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1950	83	87	78	81	5	6
1955	78	73	72	67	6	6
1960	81	69	74	64	7	5
1965	87	67	80	61	6	5
1970	83	81	77	75	6	6
1975	71	75	65	70	6	6
1980	61	66	55	60	6	6
1985	52	54	46	48	7	6
1990	44	45	37	39	7	6
1995	41	47	32	40	8	8
2000	39	47	29	38	10	9
2005	40	47	27	36	13	11
2010	38	46	22	33	15	13
2015	37	44	20	31	18	14

출처: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2 Revision*, 2013.



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64세 이상 고령자인구는 남한이 북한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남북한 인구의 부양비를 비교해 보면, 2010년 현재 남한이 북한보다 유소년부양비가 작고 노년부양비는 크지만, 전반적으로 남북한 사회

가 모두 총부양비가 낮기 때문에 경제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남한은 노인인구의 증가 속도가 북한보다 빠르기 때문에 남한의 총부양비는 북한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 김두섭 · 최민자 · 전광희 · 이삼식 · 김형석. 2011. 「북한인구와 인구센서스」.
문호일. 2011.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の人口国動—人口変から読み解く朝鮮社会主義」.
박경숙. 2013. 「북한사회와 굴절된 근대: 인구, 국가, 주민의 삶」.
이 석. 2011.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의 분석과 문제점」.
홍 민. 2013. “북한 인구정치의 기원과 식량체제.” 「통일정책연구」 22(1): 297-334.